

7년간 폐업 상조 가입자 23만명...보상금 956억

김병욱 의원 “납입 선수금 50%까지 돌려받을 수 있지만 보상 안돼”

지난 7년간 상조업체의 폐업이 크게 늘면서 가입했다가 손해를 본 피해자들이 수십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들은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상조업체 보상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이후 올해 최근까지 상조업체 183곳이 폐업한 가운데 여기에 가입했던 피해자들은 23만명, 피해건수는 53만4576건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자신이 납입한 선수금의 50%까지 돌려받을 수 있음에도 제대로 보상이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피해자들의 보상 대상 금액은 총 3008억원이었지만 이중 실제 보상이 이뤄진 건 2047억원이다. 이렇게 '잠자른' 보상금은 966억원에 달했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상조업체와 같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고객들로부터 선수금을 받으면 최소 50%를 은행이나 공제조합에 예치하게 돼 있다. 상조회사가 폐업 등으로 영업을 못하게 되면 보전금을 소비자에게 돌려주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소비자는 가입한 상조업체의 폐업 관련 공지를 제대로 통보받지 못하거나 확인하지 못해

납입한 선수금의 절반조차 돌려받지 못한 셈이다.

2013년 이후 폐업한 업체 중에 보상 대상 직원에게 보증금을 돌려준 업체는 소규모 업체 단 2곳이었다. 보상대상 인원의 절반 이상에게 보증금을 돌려준 업체도 64곳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은행이나 상조공제조합에 예치된 보상금이라도 소비자들이 찾아갈 수 있도록 폐업 상조업체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며 “관련 통지가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과의 정보 협조도 가능하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뚜기, 비빔면 진화 끝판왕...와사비 쫄면·미역초 비빔면

신제품 2종 출시... '진짜 쫄면' 잇는 역대급 인기 예상



오뚜기의 여름철 별미 라면 '와사비 진짜쫄면'과 '미역초 비빔면'이 인기몰이를 중이다.

지난 4월 출시된 두 제품은 출시 이후 한 달만에 300만개 이상이 팔렸다. 지난해 출시 66일 만에 1000만개 판매고를 올린 '진짜 쫄면'의 인기를 재현할 조짐이다.

오뚜기는 비빔면 매출의 절정기인 여름 휴가철이 본격화됨에 따라 와사비 진짜쫄면과 미역초 비빔면의 매출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와사비 진짜 쫄면'은 지난해 여름철 쫄면 시장을 이끌었던 '진짜 쫄면'의 후속작이다. 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 쫄면에 와사비를

첨가해 먹는 트렌드에 착안해 만들어진 제품이다.

쫄깃하고 탄력 있는 쫄면 면발에 태양초 고추장이 들어간 진짜 쫄면의 양념장과 특색은 매운 맛을 내는 와사비의 조합이 색다른 맛을 선사한다.

'미역초 비빔면'은 여름별미인 미역초무침을 라면으로 개발한 제품으로, 초고추장 소스와 납매안산 청정미역이 어우러졌다.

쌀가루와 미역국농축액을 첨가한 쫄깃하고 탱탱한 면발에 큼직한 미역이 풍부하게 들어있다. 태양초 고추장과 식초, 레몬, 참기름을 넣어 입맛을 돋운다. '미역초 비빔면'은 오뚜기가 창립 50주

년에 맞춰 내놓은 한정판 제품이다.

오뚜기는 지난해 출시 두 달 만에 1000만개를 판매하며 하반기 라면 시장에 돌풍을 일으켰던 '오뚜기 최고기미역국라면'의 인기에 맞춰 두 번째 미역라면 '미역초 비빔면'을 개발했다.

'와사비 진짜쫄면'과 '미역초 비빔면'은 SNS 등 온라인에서 반응도 뜨겁다.

'와사비'가 확실한 매운 맛을 더해준다. '매콤함이 살아있어 더욱 생각나는 맛', '면이 탱글하다' 등 다양한 반응이다. '꿀꺽이, 식초, 참기름, 감자를 넣으면 더 맛있다' 등 자신만의 레시피를 소개하는 글도 잇따르고 있다.

오뚜기 관계자는 "최근 계절면 시장이 더욱 확대되며 다양한 종류의 신제품이 출시되고 있다"며 "여름철라면 신제품 출시와 함께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다양한 SNS 프로모션 활동으로 시장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오뚜기는 오션월드 워터파크 제휴 프로모션을 9월까지 진행한다. 또 온라인·SNS 체험단 이벤트, 대학교 샘플링 등 다양한 소비자 참여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뉴스

순천 복성지구 '한신더휴', 오는 28일 전분주택 개관



한신공영(주)은 순천시 복성지구에 공급하는 '순천 한신더휴'의 견본주택을 이달 28일 개관할 예정이다.

'순천 한신더휴'는 지하 3층~지상 18층의 아파트 14개 동, 총 975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타입별로는 전용 67㎡ (84가구), 전용 75㎡ (171가구), 전용 84㎡A (551가구), 전용 84㎡B (497가구), 전용 102㎡ (1207가구) 등이다.

시통팔달 교통여건도 좋다. 순천~광양을 잇는 순광로와 순천~여수를 잇는 무평로가 가까이 있어, 여수·광양 지역을 쉽게 오갈 수 있다. 아울러 차량으로 약 5분 거리에 위치한 순천·완주 고속도로 '동순천IC'를 통해 전국 주요 도시로의 이동도 편리하다.

이밖에 KTX순천역이 약 10분대, 여수공항은 약 20분대 거리에 있다.

풍부한 녹지공간 갖춘 '숲세권'... 낮은 건폐율·넓은 동간거리

교육 특화 서비스·최첨단 IoT 시스템·다양한 커뮤니티 시설

인근에 왕의산? 웅방산? 서산이 위치해 풍부한 녹지공간을 갖춘 '숲세권' 아파트로, 특화 단지 설계까지 도입해 더욱 쾌적성을 높였다. 건폐율이 18.49%로 낮게 설계됐고 동간 거리도 넓다. 단지 3면에 걸쳐 약 1600㎡ 규모의 완충녹지가 마련될 예정이고, 약 2.5km 단지 둘레길도 들어선다. 단지 인근에 조성될 생태문화지구에는 캠핑장과 뮤지컬공연장·미술관·숲속 공연장 등 문화복합시설, 사마이빌 체험장·숲속 놀이터·광장·산책로 조성이 계획돼 있다.

생활여건도 우수하다. 단지 바로 앞으로 순천권역 응급의료센터가

자 전남 동부 6군에서 최대 규모 종합병원인 성기름로 병원이 위치해 있다. 또 전남권 최대 복합쇼핑몰인 LS스퀘어가 차량 약 5분 거리로 가깝고, 홈플러스 순천점도 약 10분 거리에 있다. 아울러 인근 신대지구에 마련된 다양한 생활인프라 공유도 편리한 입지다.

'순천 한신더휴'는 2018년 국토교통부 시공능력평가 15위의 1군 건설사인 한신공영(주)이 조성하는 대단위 아파트인만큼, 단지 내 도입될 특화서비스와 커뮤니티

시설도 주목된다.

단지 내에서 교육특화서비스를 누릴 수 있다. 별동에 마련된 학습관을 종로에스쿨이 위탁 운영해 '순천 한신더휴' 입주인 자녀에게 교육서비스를 제공한다. 유치부부터 중등부까지 원어민 강사나 포함된 강사진이 상주해 온·오프라인 교육 서비스를 진행하며, 교육비용은 2년간 무료다. 함께 마련되는 프리미엄 독서실도 종로에스쿨이 위탁 운영한다.

아울러 통학차량도 운행될 예정으로, 입주인 자녀들은 단지 내에서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다.

최첨단 IoT-홈네트워크 시스템도 적용된다. 모바일을 통해 집안을 제어하는 카카오프로젝트 IoT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집안 내부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으며, 한 번의 터치로 집안을 손쉽게 제어할 수 있다. 아울러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서도 집안 제어가 가능하다. 또 원패스 키를 활용해 주차 및 공동현관 출입과 승강기 자동 호출을 할 수 있고, 비상콜·멀티센서·주차장 LED 디밍제어 등 다양한 첨단기술도 두루 적용된다.

단지 내 원스톱 라이프가 가능하도록 커뮤니티 시설에도 신경을 썼다. 단지 내에는 테미공원과 놀이터·피트니스 센터·작은 도서관·어린이집·실내 골프 연습장 등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이 들어 서고, 3개의 상가동도 조성돼 편의성을 더한다.

'순천 한신더휴' 견본주택은 순천시 풍덕동 305-4번지에 마련된다. 입주는 2022년 2월 예정이다. 문의: 1644-4408

순천=김승호 기자

직장인 10명 중 9명 “입사 후 후회한 적 있다”

후회 이유 1위 “수직적 조직문화”

2위 “체계없음” 3위 “0근·주말근무”

직장인 10명 중 9명 이상은 입사 후 후회한 회사가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5일 잡코리아에 따르면 직장인 611명을 대상으로 '입사가 후회되는 회사 여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93.9%가 '입사 후 후회한 회사'가 있다고 답했다.

직장인들이 생각하는 입사가 가장 후회되는 회사는 '끈대'가 많고

수직적인 조직문화를 가진 회사(43.7%)였다. 이어 '체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일하는 회사'(35.4%), '이근과 주말출근 등이 당연한 회사'(33.1%)라는 답변도 많았다.

이외에 '월급이 적은 회사'(27.5%), '이미지만 좋고 실제 재무구조 등이 부실한 회사'(17.2%), '복지제도가 적고 사용하기 어려운 회사'(16.9%) 등도 순위에 올랐다.

특히 입사가 후회되는 회사 순위는 연령대별로 차이를 보였다.

2030세대 직장인들은 '끈대'가 많고 수직적인 조직문화를 가진 회사

를 입사가 후회되는 회사 1위로 꼽았다. 반면 40대 이상 직장인들은 '체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일하는 회사'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입사 후 후회한 회사가 있다고 답한 직장인들이 취업을 결정할 이유 1위는 '당장 취업이 급해서'(59.1%)로 조사됐다.

이 밖에도 '기업 내부 정보 등 입사 전에는 알 수 없는 내용 때문에 후회했다'(34.8%), '채용공고 면접 시 들은 내용과 입사 후가 달랐다'(32.1%), '기업 이미지, 인지도만 보고 입사를 결정해서'(19.0%) 등의 답변이 이어졌다.

한편, 응답자 46%는 입사를 후회해도 여전히 해당 회사에 재직 중이라고 답했다.

광주, 대한민국 미래로

살기 좋고, 기업하기 좋은 광주에 투자하십시오

친환경 자동차·에너지·문화산업 육성

에어가전 및 공기산업 클러스터 구축

AI 중심 산업융합 집적화 단지 조성

풍부한 우수인력 및 연구개발 적극 지원

GWANGJU